

이기는 삶

조조의 인재술(人才術)

혼란을 진압하고 천하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고자 했던 조조(曹操)는 중국 삼국시대 가장 걸출한 정치가, 군략가, 지략가로 평가받으면서도 교활한 책략가라는 비난도 동시에 받아온 인물이다. 상황에 따라 영웅의 얼굴을 보이다가도 간웅(奸雄)의 얼굴로 변하는 조조를 두고 사람들은 속을 알 수 없는 음흉한 인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조조를 간웅이라며 비난하는 사람도 재능이 있는 인재라면 누구든 데려다 쓰는 조조의 개방적인 용인술에 대해서만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인재물을 아꼈던 조조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몸을 굽힐 줄 알았으며, 조조의 이런 면을 알아본 많은 인재들은 그를 따랐다. 그 인재들 덕분에 조조는 천하를 호령하는 한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모든 싸움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다. 재능을 갖춘 인재가 옆에 있다면 어떤 싸움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사람 귀한 줄 알았던 조조는 각당이 인재들을 대접했고, 인재들은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높이 평가해 준 조조에 충성을 다짐하며 그의 휘하로 물러들었던 것이다. 능력만으로 사람을 등용했던 조조의 용인술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아침을 알리지 못한 닭도 지난 잘못을 배우고 다시 한 번 울고 싶은 법'이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품행이 좋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에 얽

매여서는 안 되며,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중시하는 조조의 태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무릇 성공은 내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남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빨리 성공을 거머쥘 수도 있다. 특히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거느렸다면 성공은 내 손안에 있는 셈이다. 조조와 함께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은 허후돈, 하후연, 조인, 조홍, 조휴, 포신 등이 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조조를 위해 술한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천하통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1천 명의 병사는 얻기 쉽지만 뛰어난 장수 한 명을 거두기란 쉽지 않다는 말이 있다.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재들의 활약이 중요했지만, 큰 뜻과 남다른 재능을 가진 인재들은 깊은 곳에 숨어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주군을 기다렸다. 조조는 자신을 도와 천하를 제패할 이런 인재들을 찾는데 주력했고,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다. 모든 일에는 사람이 우선이다. 성공에도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을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능력이 비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성공으로 이끄는 나침반을 얻는 것과

같다. 조조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천하의 인재들을 끌어들이었다. 심지어는 억지로라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사마의는 체포하라는 칙서까지 내려 벼슬자리에 앉히기도 했다. 조조는 사람을 얻고 싶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고의 스카우트였다.

큰일을 하려면 남보다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얻는 것이며, 둘째는 현명한 사람들한테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조조가 천하대업을 실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자신의 비범한 재능 외에 당대 최고의 '지략가'의 도움이 있었다. 조조가 현재를 허도(許都)로 모셔와 천하를 옆에 끼고 제후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책사들의 지략 덕분이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 잘났고 못났음은 종이 한 장 차이이다. 그러나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조조가 거느리던 책사들은 제갈량처럼 만사에 능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결과는 결코 그에 뒤처지지 않았다. 세상의 지혜에 기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의 선택이다. 내가 정한 틀에만 숨어 있다가는 평생 그 안에 갇혀 살아야 한다. 그 틀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만 눈앞에 펼쳐져 있는 흥미진진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수타와 요가 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요즘은 100세 시대를 넘어 150세 시대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 장수의 비결로 관절에 무리를 덜 주는 요가와 걷기를 추천하는데 중장년층과 갱년기 분들에게 가장 좋다. 과격한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고 체력을 많이 소모시킨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의욕이 앞선 나머지 욕심을 부리면 더 손해를 볼 수 있다. 꾸준히 매일매일 30분 정도 수타의 요가교실과 함께하는 분들은 갱년기를 넘어, 150세를 넘어,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

기지가게 커기와 몸통을 강화시키는 근육이완

효능: 몸이 나른할 때 기지가게를 커면 몸의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기분이 상쾌해진다. 아침에 하는 스트레칭은 몸



과 마음을 깨우고 활력을 준다. 누워서 나 서서 할 수 있고 몸통을 강화시키는 근육이완과 근력운동에 탁월.

동작①: 등대고 누워서 양손은 머리 위에 합장. 양다리는 붙이고 쪽 펴서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발끝을 쪽 밀고 당기면서 10초씩 유지. 5회 반복 실시.

동작②: 등대고 누워 양손 머리 위에 각지 끼고 한쪽 다리를 반대쪽 멀리 보낸다. 양쪽 팔꿈치와 어깨가 뜨지 않도록 한다. 10초 유지. 양쪽 각각 3회.

쟁기자세와 어깨서기

효능: 도립효과. 경추피로 교정. 역전 자세로 심장에 효과적. 몸 전체가 거꾸로 중력 받아 장운동 활발, 변비 해소.



머리 혈액 공급, 갑상선 자극. 하체의 부기를 없애고 꾸준히 하면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다.

동작③: 편안하게 누워서 양손은 엉덩이 옆에 두고 무릎을 굽힌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엉덩이를 높이 들어 올려 머리위에 발끝을 내린다. 10초 유지. 5회.

주의: ③번 능력 따라 손으로 허리를 받치거나 바닥에 내린다. 4번 초보자는 무리하게 일자를 만들면 목에 무리가 갈 수 있다. 45도 정도가 적당하다.

동작④: ③번 자세에서 무릎을 가슴 위에서 호흡을 내쉬며 양발을 위로 높이 들어 올린다. 발목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위로 쪽 뻗는다. 10초 유지. 5회.*



도덕경 해설



大國者下流

대국자하류
큰 나라는 하류와 같다

도덕경 61장 해설

세상이 이치가 사람의 일이나 국가의 일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예로부터 힘이 세고 영토가 넓은 나라가 힘이 약하고 영토가 작은 나라를 강제로 취하려는 일들과,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는 일이 그렇다. 행여 큰 나라나 힘센 사람이 억지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는 있으나 어디 그 마음과 정신까지 완전히 굴복시킬 수가 있겠는가!

여하튼 억울하고 힘이 맞힌 그런 마음들이 표출하여 나라는 나라대로 사람은 사람끼리 여러 면에 있어서 명분과 의리를 앞세워 시비하고 이해득실을 따져 서로 대립하고 충돌한다.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시비와 분쟁이 사건 사고로 이어져 잡지도 조용하고 편안할 날 없는 지옥세상으로 펼쳐진다. 말 못 하는 짐승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러하니 하지만 생각하는 힘과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에게는 그렇게 당하고만 살 수가 없는 법이다. 이러한 강제적인 굴복행위는, 결국 '총칼로 흥한 자는 총칼로 망한다' 하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요즈음 자본주의 세상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봐도 마찬가지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의 것을 그 바닥까지 긁어 가져 가려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그 모양과 방식만 다르다 뿐이지 현실 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못 가진 자는 계속해서 못 가져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댄다. 이러한 세상을 적나라하게 말하면 죄악세상이라고 하고 무도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도가 있는 세상은 어떠한가? 산에 물이 골짜기로 모이는 것과 모든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골짜기와 바다는 낮고 낮은 곳에 머문다. 그래서 모든 물은 낮은 곳으로 모이고 흐른다. 크고 넓은 그 곳에 물은 가득차게 되고, 온갖 유정물이 거하며 다양한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를 보아 국가의 일이나 사람의 일도 결국은 자연의 이치를 담은 인간의 마음에 달려 있다. 낮고 낮은 하심의 자세와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정치행하고 인간관계를 가지면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화합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고 고개 높이 쳐들고 목을 곧추 세운 오만분순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대하면 앞에서는 힘이 없어 굽신할지 모르지만, 뒤돌아서서 흥보고 욕하고 거역하는 법이다.

이러한 이치를 글은 보아서 아는 것 같고, 말은 들어서 쉬운 것 같지만, 알고도 어려운 것이 사람의 타성에 젖은 마음과 행동이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고대의 선지현인들이 깨달은 삶의 철리, 정도(正道)와도 같은 말씀을 먹는 음식처럼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유기체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大國者下流(대국자하류): 큰 나라는 하류와 같다

天下之交(천하지교): 천하가 교류하는 것과 같이 때문이다

天下之牝(천하지빈): 큰 나라는 암컷이다

牝常以靜勝牡(빈상이정승모): 암컷은 고요함으로써 수컷을 이기기 때문이다

以靜爲下(이정위하): 고요함으로써 낮아지는 것이다

故大國以下小國(고대국이하소국): 고로 큰 나라는 작은 나라보다 낮아짐으로써

則取小國(즉취소국): 작은 나라를 취하고

小國以下大國(소국이하대국): 작은 나라는 큰 나라보다 낮아짐으로써

則取大國(즉취대국): 큰 나라를 취한다

故或下以取(고혹하이취): 혹여 아래가 되어 취하게 되고

或下而取(혹하이취): 혹여 아래가 되어 취해진다

大國不過欲兼畜人(대국불과욕겸축인):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아울러서 사람을 기르려고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小國不過欲入事人(소국불과욕입사인): 작은 나라는 큰 나라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는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夫兩者各得其所欲(부양자각득기소욕): 대저 양쪽 나라 각기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얻으려면

大者宜爲下(대자의위하): 큰 것이 먼저 마땅히 아래를 위함이니라.*

김주호 기자

허만욱 승사 칼럼

성경은 이슬성신 부어주는 자가 구세주라고 명백하게 천명하였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애타계 구세주의 출현을 고대하셨을까! 도대체 구세주란 어떤 사명을 감당할 신 본질을 문자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고뇌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구세주(救世主)!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실려달라고 외치는 자를 건져 올리듯, 육천 년간 마귀 육에 갇혀서 무참하게 죽어가는 인간들을 그 사망의 굴레에서 석방시킬 수 있는 실력자를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육천 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로로 삼고 그 주체 영이 된 악랄한 마귀의 세력을 완벽하게 소탕하려면 특수한 기능의 소유자가 아니면 불가능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육천 년간 연마한 '신비의 무기'를 맡길 자로 구세주를 선택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슬성신 부어주는 자가 구세주다"라고 명백하게 만천하에 공포(公報)하신 것이다.

따라서 구세주의 증표는 곧 이슬이요 이슬은 빛이다. 빛은 에너지요 생명요 마귀를 섬멸하는 살아광선이다. 인간은 육천 년간 마귀 육에 갇혀서 무참히 죽어갔는데 이제 생명의

본체가 나타나서 유한생명을 무한생명으로 개조하였으니 희망적인 영생 불사의 역사는 불을 보듯 분명하다 할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무적장수 구세주를 바라보지만 해도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 이렇게 쉬운 영생법을 보여줌으로써 수혜자들은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진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꿈 같은 황제도 '나라는 주체 영을 버리기 전에는 절대 기대할 수 없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에 위대한 선물을 바라기 전에 자존심 마귀부터 죽여야 한다.

오늘도 구세주께서는 온 우주의 영적 권좌에서 하나님과 진동에너지인 원자, 영혼, 중성미자, 미립자들을 거느리시고, 영원무궁한 새 생명을 광선으로 바꾸어 방출하고 계신다. "이슬성신 부어주는 자가 구세주다"라는 말이 진리이다. 인간을 비롯한 만물이 신이요, 미립자이며 모두가 나와 내가 없는 하나의 몸이니 "누구든지 내 몸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처럼"이란 구호도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곡선광선으로 나타난 이슬성신 하나님의 빛은 직·곡선으로 움직인다 (直曲交線相交射 각양유록 생초지락)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9261-9974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53)474-7900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울산제단 : (052)291-1849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포항제단 : (054)292-5455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43)233-6146

충주제단 : 010-9980-5805
橫濱祭壇 : (045)261-6338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関祭壇 : (0832)32-1988
久留米祭壇 : (0942)21-4669

岐阜祭壇 : (0584)32-1350
大阪祭壇 : (06)6451-3914
神奈川祭壇 : (045)451-3150
Philadelphia : (215)722-2902
London : (0208)894-1075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